

중증질환 미래 의료 선도 병원 삼성서울병원

1994년 개원한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한국 의료계의 변화를 선도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해 '미래 의료의 중심 SMC'라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증 고난도 환자를 최고의 의료기술로 치료하여 최상의 치료 성과를 달성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INTERVIEW

삼성서울병원은 모든 진료과정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왔습니다. 암·호흡기 등 중증질환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은 것 역시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밀 의료, AI 기반 진료, 안전보건경영 국제 인증 등 첨단 의료기술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앞으로도 글로벌 의료를 선도하며 국민 건강과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도전해 나가겠습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



아시아-태평양 암·호흡기 분야 2년 연속 최고 병원 선정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국제적인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시사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발표한 '2025 아시아-태평양 베스트 전문병원(Best Specialized Hospitals Asia-Pacific 2025)' 평가에서 암과 호흡기 두 분야 모두 2년 연속 아시아-태평양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었다. 암 분야에서는 CAR T-세포치료, 정밀 의료 기반 치료, 양성자 치료 등 최신 치료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며, 12대 암종에 대한 전향적 레지스트리를 구축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 및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세계 암 치료 기관 중 종합병원으로서 사실상 최고 수준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호흡기 분야에서도 삼성서울병원은 폐암, 만성폐쇄성 폐 질환, 폐 이식 등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에서 아시아-태평양 최고의 진료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10년 이상 변화가 없던 순수 간유리 폐결절의 성장 과정을 세계 최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며 국제적으로 학술적 주목을 받았다.

생체 신장 기증자의 건강을 지키는 정밀 의료 기술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신장을 기증한 823명의 생체 기증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는 생체 신장 기증자의 기증 후 남은 신장의 기능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로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예측 모델은 복잡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없이 웹 기반 문항 입력만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기증 후 신장 기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큰 장점이다.

삼성서울병원은 해당 AI 모델을 의료 현장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다윈'에도 탑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기증자의 신기능을 즉시 예측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신장 기증자의 준비 단계부터 장기적인 건강 관리까지 전주기적 케어를 제공하는 기증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AI 모델 개발로 진료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